

농인 청소년의 감정 경험 및 표현 특성

Experiencing and Expression of Deaf Adolescents

박지은* · 김은예* · 장은정* · 정이내* · 음영지* · 손진훈*†

Ji-Eun Park* · Eun-Ye Kim* · Un-Jung Jang*

E-Nae Cheong* · Young-Ji Eum* · Jin-Hun Soh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af and hearing adolescents of experiencing emotions and the intensity levels of expressing them. Three different video clips were used to induce pleasure, anger, and sadness. While watching the clips, facial expressions of the participants were recorded. The experienced emotions were measured by a self-report method, and the third person rated participants' expressed emotions based upon the recorded facial images. Two groups (deaf and hearing) were compared if those two groups shared the same experienced emotions, and whether the ratings scored by the third person corresponded with the self-rated scor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erienced emotion and its intensity level. However, hearing adolescents showed more intensive responses of pleasure than they reported, while deaf adolescents showed less intensive expressions of happiness than they reported themselves. Thus, hearing peopl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nd fully comprehend how the deaf feel in general circumstances. This further indicates that the deaf adolescents cannot get enough supports from the hearing people when they express their feelings, and consequently, have a possibility of causing misunderstandings, conflicts, or even a break in relationships.

Key words: Induced Emotions, Experienced Emotions, Expressed Emotions, Deaf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인들이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때 그 특성이 청인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감정을 유발 시키면서 얼굴 표정을 녹화하였다. 감정의 경험 내용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감정의 표현은 녹화된 얼굴 표정을 평정하였다. 두 집단 간에 경험 감정 속성이 동일한지 그리고 본인이 보고한 감정과 타인이 평가한 감정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경험 감정의 유형 및 강도 점수는 청인과 농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표현 감정 평정 결과는 기쁨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인들의 기쁨 표정은 본인이 느낀 강도보다 타인에게 더 강하게 평가되는 반면, 농인들은 본인이 느낀 기쁨의 강도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농인들의 감정 상태를 청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 본 연구는 2015년 충남대학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교신저자 : 손진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 jhsohn@cnu.ac.kr

TEL : 042-821-6369

FAX : 042-868-9447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인 청소년들의 감정 표출 방식이 같은 또래의 청인들과 달라 서로간의 감정적 교류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감정 유발, 감정 경험, 감정 표현, 농인

1. 서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Rieffe et al., 2006; Saarni, 1999). 농인들은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 청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정서의 경험과 표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농인 아동의 정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농인 아동들의 정서 경험과 표현이 청인 아동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Rieffe et al., 2006; Hosie et al., 2000).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차도 매우 크지만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Kalat & Shiota, 2011). 농인과 청인들은 비록 동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농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농문화를 가진다(Kang, 2002). 예를 들면 농인들은 특이하게 수화이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수화이름을 지을 때 외모적 특징이나 얼굴의 상처,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청인 문화에서는 이런 별명은 놀림의 대상이 되지만 농인들은 이런 수화이름을 놀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Lee & Yoon, 2006). 이처럼 동일한 상황을 농인과 청인들이 다른 감정으로 수용한다면 동일한 자극을 주었을 때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적 경험이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감정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이용하여 감정을 유발 시키고 청인과 농인이 경험하는 감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정서의 표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농인과 청인은 차이가 있었다. Hosie 등(2000) 연구에서는 농인 아동과 청인 아동의 정서 표현을 비교하였다. 농인 아동은 청인 아동에 비해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서툴렀고 분노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달랐다. 청인들은 분노 표현을

감추는 이유가 친사회적인면이나 규준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인데 반해 농인 아동들은 자신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인들은 감정 인식 단서를 얻는 감각 모달리티가 청인들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두 집단의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 표현이 다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청인은 시각과 청각적 단서의 혼합된 형태로 최종 감정을 지각하게 되는데(De Gelder & Vroomen, 2000) 농인들에게는 청각 단서가 사라지면서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농인들은 자신의 얼굴 표정에 충분히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또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농인들의 감정 재인에 관한 일관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감정을 표현한 얼굴 표정 재인 과정에서 농인 아동들은 같은 또래의 청인 아동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Hopyan-Misakyan et al., 2009).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농인 아동들이 타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Bachara et al., 1980; Dyck & Denver, 2003; Wiefferink et al., 2013). 더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연구에 국한되어있어 농인 청소년들의 감정 재인에 관한 정보는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인들의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 정보가 청인과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농인들의 수화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인들은 얼굴 표정에 수화 문법을 일부 담고 있다(Yoon & Kim, 2003). 농인들이 수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안 그 얼굴 표정에는 감정적인 표현이외에 수화 특징적인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인들이 그 표정을 볼 때 표현자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인들이 농인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에 관한 연구 결과는 어느 사회, 문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범문화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외부인에게 자녀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심하게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국내 농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연구를 수행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농인 청소년의 감정 연구는 이제까지 자기 보고서 자료에 의존했다. 얼굴 표정에 드러난 감정 표현 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연구된 결과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심리 연구 대상도 주로 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기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사회적으로는 또래들끼리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청인과 소통해야 할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농인 청소년들의 감정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감정 경험과 표현에 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에게 동일한 감정 유발 자극을 주어 감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안 얼굴 표정을 녹화하여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과 표현 정도를 비교하고, 농인의 감정 표현은 청인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가자

실험 참여자는 대전시 및 인근 도시 농아 공부방과 특수 교육 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 21명과 이들의 연령과 성별, 지능을 고려하여 매칭한 청인 청소년 21명이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지능은 K-WISC-IV로 측정하였고 언어이해 능력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각추론 능력 점수(토막 짜기, 공통그림 찾기, 행렬

추리, 빠진 곳 찾기)로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지각추론 점수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40) = -0.125, p = .9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		age		Perceptual Reasoning	
	Male	Female	Mean	Range	Mean	SD
Deaf	11	10	15.8	12-19	91.0	7.9
Hearing	11	10	15.0	11-19	91.4	10.3

2.2. 실험 자극

감정을 효과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사용 자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 유발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발 자극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청인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들 중에서 농인 청소년들도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자주 접하는 TV프로그램, 영화 목록 등과 감정 경험 에피소드를 조사하여 그것을 토대로 동영상을 선별한 후 농인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처리를 하였다. 청인 청소년과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농인 청소년들 34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통해 감정 유발 자극을 완성 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고 참여자의 90%이상이 해당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Table 2. Pretest results for emotion inducing stimuli

Pleasure	Pleasure induced	90.3%
	Intensity score	6.75/10.00
	Duration	2 ' 50 "
Anger	Anger induced	90.3%
	Intensity score	8.00/10.00
	Duration	4 ' 20 "
Sadness	Sadness induced	98.4%
	Intensity score	7.18/10.00
	Duration	5 ' 40 "

유발 감정 종류는 기쁨, 분노, 슬픔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으로 선정하였다. 기쁨 자

극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것으로 외국인이 물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다. 분노자극은 영화속 주인공이 장애자 시설의 학생들이 당한 억울한 피해를 밝히려고 애쓰지만 사회 지도층의 비리로 인해 목살당하는 장면이다. 슬픔자극은 가족처럼 지내던 개의 죽음으로 주인공이 오열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발췌하였다.

2.3. 실험 절차

실험은 조용한 실험실 및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농인 참가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 통역 협회의 협조로 파견된 수화 통역사를 동반하고 진행하였다. 농인 학생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라포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험자들은 실험 수개월 전부터 수화통역협회에서 주관한 수화 초급 과정을 이수하여 간단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혔고, 실험일정이 정해지면 하루 전날 실험 장소에 도착하여 피험자들과 미리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인 학생들은 실험자들의 서툰 수화를 교정해주면서 좀 더 빠르게 경계심을 풀 수 있었고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실험 참여자는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동영상을 보았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 모니터 위쪽에 설치된 웹캠을 통해 참여자의 표정을 촬영하였다. 동영상이 끝나면 주관적 감정 평가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장면은 어딘지, 그때 경험한 감정의 강도는 얼마나 강한지에 관한 문항들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때 느낀 감정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강한 강도의 순으로 제1감정, 제2감정으로 명명하였고 각 감정에 해당하는 장면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영상이 끝난 후엔 유발된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한 후에 다음 영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런 동일한 과정을 2회 더 반복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슬픔 유발 자극은 심한 각성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따라서 실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정 유발 자극의 제시 순서를 분노-기쁨-슬픔으로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2.4. 감정 평정

동영상을 보는 동안 녹화된 얼굴 표정을 분석하여 이들이 보고한 감정과 그 때 얼굴표정에 나타난 감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관적 감정 평가지에 피험자 자신이 가장 강하게 해당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한 자극영상의 장면(자극 피크)을 찾고, 이 장면을 볼 때 녹화된 얼굴표정에 얼마나 감정 표현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감정 표현이 가장 최고조에 달한 표정(표정 피크)을 찾기 위해서 보고된 자극 피크시점을 중심으로 얼굴표정을 0.2초 단위로 자동 캡처한 후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다섯 장을 1차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 다섯 명이 모여 다섯 장중에 가장 감정이 고조된 것으로 보이는 표정 사진 한 장을 최종 선별하여 감정 피크 표정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선별한 각 개인별 피크 표정의 강도와 감정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표정이 필요하다. 자극이 시작되면 지시문이 나오고 이어서 시선고정점(십자표시)이 제시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표정을 캡처하여 그것을 각 개인의 기준 표정으로 하였다. 이 기준 표정과 피크 표정을 비교해 보면서 피크 표정에 나타난 감정이 무엇인지 평정하였다. 감정 평정은 심리학을 전공한 석·박사 열 명이 수행하였다. 주어진 두 개의 표정을 비교해 보면서 피크 표정에서 표현된 감정이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피크 감정의 강도 점수는 10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감정 유발 결과(감정의 경험)

주관적 감정 평가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감정 유발 자극은 청인, 농인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해당 감정을 유발하였다. 농인 학생들 21명중 4명은 기쁨 유발 자극에서 슬픔과 혐오를 느꼈다고 보고했고, 2명은 분노 유발 시 공포, 혐오를 느꼈다고 했다. 슬픔 유발은 전원이 슬픔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청인 학생들의 경우는 분노에서 2명이, 슬픔에서 1명이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isher's exact test 결과, 자극에 의해 유발된 감정의 종류는 농인 청소년과 청인 청소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Inducing and experiencing emotion matching results

	Pleasure		Anger		Sadness	
	D	H	D	H	D	H
matched ratio	17/21	21/21	19/21	19/21	21/21	20/21
df	38		38		41	
Fisher's exact test P	.053		.697		.500	

D: Deaf H: Hearing

주관적으로 보고한 감정의 강도 점수(10점 척도)에서도 농인과 청인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은 동일하게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강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atings for experienced intensity score

	Pleasure		Anger		Sadness	
	D	H	D	H	D	H
M	7.23	6.97	9.20	8.53	7.54	7.13
SD	1.75	2.24	1.23	1.47	2.27	2.63
df	36		36		39	
t	0.388		1.504		0.532	

D: Deaf H: Hearing

3.2. 얼굴 표정 평정 결과(감정의 표현)

농인, 청인 청소년들이 감정을 경험할 때의 얼굴 표정을 심리학 전공자 열 명이 평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감정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농인 청소년들의 기쁨과 슬픔 표정은 청인 청소년들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즉 청인들의 기쁨 표정은 평가자의 99%이상이 기쁨으로 평가하는 반면 농인 청소년의 기쁨 표정은 86.7%만 기쁨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약 13%의 사람들은 농인의 기쁨 표정을 보고 '중립(2.8%)', '분노(3.8%)', 혹은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2.8%)' 등으로 응답했다. 슬픔도 청인의 슬픔 표정은 66.2%가 슬픔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농인의 슬픔 표정은 35.7%의 평가자들만 슬픔으로 지각하고 25.7%는 '중립', 16.6%는 '분노', 6.1%는 '모름' 등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분노 표정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표정의 강도 평가 결과도 기쁨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청인들의 기쁨 표정은 7.32점으로 평가된 반면 농인 청소년들의 기쁨 표정은 5.78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Table 5).

Table 5. Ratings for facial expressions

	Matched ratio(%)			intensity(10-points scale)		
	Anger	Pleasure	Sadness	Anger	Pleasure	Sadness
D	41.0%	86.7%	35.7%	3.47	5.78	3.38
H	54.8%	99.5%	66.2%	3.64	7.32	4.67
t(40)	-1.383	-2.154*	-3.593**	-.271	-2.375*	-1.992

*p < .05, **p < .01

3.3. 감정 경험과 표현의 강도 비교

감정을 경험할 때 본인이 지각하는 감정의 강도만큼 얼굴 표정에 표현되는 정도가 청인과 농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발 자극 영상을 보는 동안 본인이 경험한 감정의 강도를 스스로 보고한 점수(자기 경험 강도)와 그때의 얼굴 표정을 심리학 연구자들이 평가한 점수(타인 평가 강도)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감정(기쁨, 슬픔, 분노)과 두 가지 강도 점수의 유형(자기 경험 강도/타인 평가 강도)에 따른 강도 점수를 두 집단(농인/청인)에 따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Table 6). 결과는 감정 종류에 따른 주효과와 강도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강도 유형과 집

Table 6. Result of 3-way ANOVA test

	SS	df	MS	F
emotion	50.021	2	25.010	9.261***
emotion x group	13.647	2	6.823	2.527†
error(emotion)	172.842	64	2.701	
intensity type	515.105	1	515.105	116.806**
intensity type x group	28.051	1	28.051	6.361*
error(intensity type)	141.117	32	4.410	
emotion x intensity type	159.137	2	79.568	32.465***
emotion x intensity type x group	2.525	2	1.263	.515
error(emotion x intensity type x group)	156.856	64	2.451	
group	5.960	1	5.960	.808
error	236.154	32	7.380	

† p < .1, *p < .05, **p < .01, ***p < .001

단, 그리고 강도유형과 감정종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정 종류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은 보였다.

감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감정별 강도 점수의 추정평균은 기쁨 7.043 (SE=.251), 분노 6.307 (SE=.190), 슬픔 5.837 (SE=.300)이며 기쁨과 분노, 기쁨과 슬픔의 평균차이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강도의 유형에 따른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험 강도와 평가 강도를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반복요인으로 하여 집단차를 검증하였다(Table 7).

Table 7. Group differences on intensity types

	source	SS	df	MS	F
self reported intensity	group	4.075	1	4.075	.914
	error	142.733	32	4.460	
intensity rated by others	group	31.331	1	31.331	4.488*
	error	279.269	40	6.982	

* $p < .05$

본인이 스스로 보고한 점수인 자기 경험 강도 점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평가된 평가 강도 점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각 집단별 강도 유형 점수의 평균값은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Mean of intensity scores

	self reported intensity			intensity rated by others		
	Pleasure	Anger	Sadness	Pleasure	Anger	Sadness
Deaf	7.41	9.28	7.87	5.83	3.70	3.26
Hearing	7.51	8.44	7.41	7.42	3.80	4.82

5. 결론 및 논의

농인과 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감정을 유발 시킨 후에 각자 느낀 감정에 관한 자기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험된 감정의 종류와 강도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은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때 유사한 감정

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기쁨 자극의 경우 통계적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쁨 유발 감정이 농인들에게 적절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감정 유발 자극 선정 실험에 참여했던 농인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농인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나온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본 실험에 참여한 특수학교 농인학생들보다는 청인과의 소통을 하는 기회가 더 자주 있었고, 청각 상실정도도 덜한 학생이었다. 본 실험에 참여한 농인 학생들은 기쁨 유발 자극 동영상 보면서 21명중 4명은 다른 감정(슬픔, 혐오)를 보고하였다. 청인 청소년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주인공의 감정에 주목했다. 주인공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마음으로 감정을 이입하면 매우 슬프거나 화났을 법 하다. 자기보고 과정에서 그들에게 왜 슬프다고 생각했는지 물었을 때 주인공이 놀림을 받는 것이 슬프다고 답했고, 혐오스럽게 느낀 학생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는 그들이 장애인으로 사회에서 받아온 놀림이나 따돌림 경험(Seo, 2001)으로 인해 놀림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거나 공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에는 농인들만 모여 있는 집단에서 생활한 학생들과 청인들과 섞여 생활하는 농인 집단의 감정 재인 특성을 더 상세히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두 집단의 감정 표현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고한 감정(자기 경험 감정)과 그 순간의 표정을 타인이 평가한 감정(타인 평가 감정)을 비교한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기쁨을 느꼈다고 보고한 장면에서 캡처했던 청인 청소년의 표정을 본 평가자들은 99.5%가 그것을 기쁜 표정으로 평가하였으나, 농인 청소년들의 표정을 본 평가자들은 86.7%만 그것이 기쁜 표정이라고 평가했고 나머지 13.3%는 ‘무표정’, ‘분노’, ‘혐오’, ‘슬픔’, ‘모름’ 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청인들은 농인들의 기쁜 표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슬픔의 경우, 청인들의 표정은 66.2%의 평가자가 슬픔으로 평가했고, 농인의 표정은 35.7% 평가자만

슬픔으로 평가하였다. 슬픔을 느낄 때 청인들의 표정은 ‘분노’로 오인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1.9%). 이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때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어 순간 캡처된 표정만으로 평가될 때 나타난 오류이다. 그에 반해 농인들의 슬픈 표정은 35.7%의 평가자들만 슬픔으로 인식하였고 25.7%의 평가자들은 ‘중립’으로 오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즉 청인들은 농인들의 슬픈 표정 역시 인식하기 어려워했다.

농인들의 분노 감정 표현도 41%로 높지 않았지만 청인의 경우도 54.8%로 낮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청인들끼리도 상대방의 분노 표정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의 종류 뿐 아니라 감정의 강도는 얼마나 충분히 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인이 보고한 강도와 타인이 평정한 감정의 강도를 비교했다(Table 8). 자기보고와 평정자의 강도 점수가 유사할수록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노와 슬픔이 주관적 보고에 비해 평정자의 강도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분노나 슬픔 강도만큼 얼굴 표정에는 표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차가 없음은 농인이나 청인 모두 분노나 슬픔 표정이 본인이 느낀 만큼 얼굴에 충분히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농인이나 청인 모두 타인의 분노나 슬픈 표정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감정을 느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집단 차이는 기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인들은 본인이 느낀 기쁨의 강도를 6.9점으로 평가했으나 타인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기쁨의 강도를 7.3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농인들은 본인이 기쁨의 강도를 7.2점으로 보고했으나 타인이 그 표정을 보고 평가한 기쁨 강도는 5.8점이었다. 즉 농인들이 느낀 기쁨의 강도를 청인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농인들 자신은 크게 기뻐지만 그 표정을 본 청인들은 농인들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노나 슬픔과 달리 청인들끼리는 상대의 기쁨 정도를 표정만으로 잘 파악하기 때문에 농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을 때도 역시 그들의 기쁨 정도가 표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농인의 표정에 드러나는 기쁨의 표출이 청인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에 따른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기 쉬워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mmons & Colby, 1995).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유아기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기 시작해서 학령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학습을 통해 정교화 된다(Kim, 2004). 뿐만 아니라 농인부모에게서 자란 농인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이 청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Courtin, 2000; Courtin & Melot, 2005)도 있음을 볼 때, 농인 아동 특히 청인 부모를 둔 농인 아동의 경우는 더욱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 감정 표현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에도 현실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청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없었으므로 청인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농인 청소년들은 청인들과 동일한 방식의 감정 표현 기술 습득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농인 청소년들이 감정을 경험하고 자각 하는 능력은 청인 청소년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얼굴 표정으로 표출하는 방법은 청인 청소년들과 차이가 났다. 대인관계에서 얼굴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은 타인을 진정시키거나 저지시키기 혹은 자신을 좀 더 호의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Lewis & Michalson, 1985).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청인에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청인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표현 감정 평가 단계에서 평가자들이 모두 청인이었기 때문에 농인들끼리 서로 얼굴 표정을 평가해보지 못한 점이다. 청인들에게는 어렵게 지각되는 농인들의 감정표정이 같은 농인들끼리는 과연 쉽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지 알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농인 피험자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 때문에 많은 시간을 실험에 할애하기 어려웠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농인 청소년들의 감정 반응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일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교육 및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Bachara, G. H., Raphael, J., & Phelan III, W. J. (1980). Empathy development in deaf preadolesce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5(1), 38-41.
- Courtin, C. (2000). The Impact of sign language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the case of theories of mind.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3), 266-276.
- Courtin, C. & Melot, A. M. (2005). Metacognitive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lessons from the appearance-reality and false belief tasks. *Developmental Science*, 8(1), 16-25.
- De Gelder, B. & Vroomen, J. (2000). The perception of emotions by ear and by eye. *Cognition & Emotion*, 14(3), 289-311.
- Dyck, M. J. & Denver, E. (2003). Can the emotion recognition ability of deaf children be enhanced? A pilot stud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8(3), 348-356.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
- Hopyan-Misakyan, T. M., Gordon, K. A., Dennis, M., & Papsin, B. C. (2009). Recognition of affective speech prosody and facial affect in deaf children with unilateral right cochlear implants. *Child Neuropsychology*, 15(2), 136-146.
- Hosie, J., Russell, P., Gray, C., Scott, C., Hunter, N., Banks, J., & Macaulay, M. (2000). Knowledge of display rules in prelingually deaf and heari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3), 389-398.
- Jeong, K. S. (2001).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s developed to improve the problem of maladjusted deaf stude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Project Report*, 1-59.
- Kalat, J. & Shiota, M. (2012). *Emotion(2nd ed.)*. Belmont, CA: Wadsworth : Cengage Learning.
- Kang, J. H. (2002). *Deaf, Who is he?*, Seoul: Deaf society center.
- Kim, J. K., Kang, H. J., & Goo, J. H. (2011).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2), 141-156.
- Kim, K. H. (2004). *Emotion psychology*. Seoul: Pakyoung Press.
- Lee, H. N. & Yoon, B. C. (2006). A study on name signs for Deaf people,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5(3), 231-247.
- Lewis, M. & Michaelson, L. (1985). Faces as signs and symbols. In G. Zivin (Ed.), *Development of Expressive Behavior: Biological-environment Interaction*. New York: Plenum.
- Rieffe, C., Oosterveld, P., & Terwogt, M. M. (2006). An alexithymia questionnaire for children: factorial and concurrent validation res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1), 123-133.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York: Guilford Press.
- Seo, K. S. (2001).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eaf*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ongju University, Gongju, Korea.
- Wiefferink, C. H., Rieffe, C., Ketelaar, L., De Raeve, L., & Frijns, J. H. (2013). Emotion understanding in deaf children with a cochlear implant.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8(2), 175-186.
- Yoon, B. C. & Kim, B. H. (2003). *The Study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Non-manual Signals in Korean Sign Language* (Doctoral degree'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원고접수: 2016.02.03

수정접수: 2016.03.29

게재확정: 2016.06.22